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패러다임 전환과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방안

김진군* · 박성준**

*농촌진흥청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Paradigm Shift for the 21st Century of Knowledge Information Era and Measures for Activating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Jin-Goon Kim* and Sung-Joon Park**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are faced with increasing demands for more efficient production and managerial technology according to globalization and free trade system. At the same time, three steps of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in 1998 and 1999 resulted in decreased number of organization and manpower, thus, resulting confusion in implementing extension services.

To cope with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challenges, Korea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should try paradigm shift including the followings:

1. To establish identity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through making laws and regulations in terms of concept, roles, principles, implementation and methods.
2. To implement vitalizations plan through enhancement of national extension service such as food production, raising local specialty products for domestic consumption and producing strategic agricultural products for export, expanding capability of rural women, increasing opportunity for management consultation, supporting digital technology information, and promoting morale and capability of extension educators.
3. To reform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through adjusting the functions of extension service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gionalizing city and county extension center to provincial level, and changing the status of directors of extension centers from city /county to national government.

Key Words : Agricultural extension, Globalization,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Extension service

I. 농촌지도환경의 변화와 당면과제

1. 농촌지도환경의 변화

□ 외부환경의 변화

-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의 중요성 고조
- 지방화에 따른 국가·지방간 연계성 강

화와 역할분담 개요

- GDP와 인구비중, 공익적 기능 등 농업의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도 변화
- 농업기술의 전문화로 고품질생산 및 경영에 대한 기술수요 증가
- 사이버, 디지털화 등 정보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속한 대응 필요
- 농촌지도체제의 변화
 - '97년 1월 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으로 인사·조직권 이양
 - '98, '99년 2단계에 걸친 정부 구조조정으로 지도조직 및 인력이 크게 감축되었고, 추후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상존함
 - 농정기능과의 통합으로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추진방법에 혼선
 - 농촌지도기관에 대하여 긍정·부정적인 다양한 평가시각이 존재

2. 당면과제

- 농업인 측면
 - 지방직화 이후 농밀한 현장기술지도 약화로 농업인 불만 제기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13개 시군 농업인에 대한 지도기능 부재
 - 전문화 지도를 요구하고 있는 특수작목 농가의 수요 미충족
- 국가적 측면
 - 식량자급, 환경농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도기능의 약화
 - 중앙과 지방, 지방 상호간의 인력 및 기술정보 교류가 단절 또는 지체되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저하와 지역간 불균형 발전 초래
- 사업추진 측면
 - 최근 지도조직 및 인력의 과다 감축으로 사업 추진력 약화

- 노점상 단속, 미납세 징수 등 행정업무 증가로 지도기능 위축

II. 농촌지도사업 패러다임 전환 계획

1. 목 적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여 공공기관으로서 농촌지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술·정보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농업인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농촌지도사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기본방향

- 농촌지도사업의 정체성 확립
 - 농업인 행동변화 중심의 사회교육적 접근방식에서 영농 및 생활현장에서의 성과를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및 보강
 - 지도대상과 사업범위, 지도방법 등의 지도원리와 지도기관 및 지도직공무원의 역할 개념 재정립
→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 증진
- 여건변화에 부응한 역점 추진사업과 운영방식의 전환
 - 식량생산 및 환경농업 등의 국가적인 지도사업과 지역농업 발전과 관련된 지도사업을 차별화하여 추진
 - 지도직공무원의 기술·정보 관리능력 배양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사이버 기술지원, 컨설팅 등 디지털시대에 부응한 지도방법으로 전환
→ 국민에게 필요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 조성

-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지도체제의 개선
 - 중앙의 조직을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할 조직으로 개편
 - 지방의 조직체계를 사업추진과 인력관리가 효율적인 체계로 개편
- ⇒ 21세기 지도사업 기반을 정립하여 사업추진의 효율화

3. 세부추진계획

가. 농촌지도사업의 정체성(Identity) 확립

누구를 위하여(Who), 무엇 때문에(Why), 무슨 기능(What)을 수행하는가, 이 기능의 효율성을 위해 어떤 형태의 조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How)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지도사업 정체성 확립

- 농촌지도사업 추진 원리(Principle)의 정립

< 사업목적 >

농업인의 지식, 태도, 기술 등
행동변화 중심



영농 및 생활현장에서의
실천성과까지 확장

예) 병해충 예찰 방제 능력 향상 → 피해를 1%로 줄이기

< 사업대상 >

농산물 생산자인 농업인 중심



농업인 + 최종고객인 소비자 중심

< 사업범위 >

농촌개발기능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사업



농업생산 및 경영, 생활관련
기술의 보급교육사업

※ 농업인 학습조직, 품목모임 등은 기술보급의 수단으로 자리매김

< 사업운영 >

농업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교육적과정의 효율성 중심



생산성과 부가가치의 창출 등
경영관리 개념 적용

※ 교육적 과정(Educational Process) : 농업인이 지도사 등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 평가, 수용 등의 학습과정

< 지도방법 >

집합교육 및 시범사업 등
전통적인 대면접촉 중심



사이버 컨설팅 등
디지털매체 이용방법 확충

- 지도기관 및 지도직공무원의 역할 개념 정립

- 영농과 농가생활 관련 기술·정보의 보급사업과 현장애로기술 개발로 역할 명료화

- 전체 국민을 위한 공공기능과 지역 및 농업인 발전 지원기능으로 구분

- 공공기능 : 국민 안위와 직결되는 식량생산, 환경보전 등 국가고유기능

- 지원기능 : 특산품 육성 등 지역농업 발전과 관련된 사업 지원기능
- 중앙과 일선 지도공무원간 전문기능의 차별화
- 지도기관 설치 및 지도사업 명칭의 특성화
 - 기술보급기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분리하여 설치
 - 지도사업 명칭은 기술·정보의 보급 특성이 나타나도록 변경 검토
예) 농촌지도사업
 - 농업기술보급사업 (Agricultural Technology Extension Service)
- ※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 농업기술에 대한 용어의 개념정립
 - 농업경영과 가정생활이 같은 공간(농촌)에서 이루어지는 특성 반영
 - 「농산물생산 + 농업경영 + 농가생활」 관련기술로 개념 정립

< 외국의 지도사업 명칭 >	
● 미	국 :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 일	본 : 農業改良普及事業
● 중	국 : 推廣事業
● 프	랑 스 : Vulgarisation(지식의 대중화)

- 농촌지도사업 개념정립을 위한 훈령 제정 및 공감대 확산
 - 지도사업의 원리, 범위, 대상, 추진방법 등에 대한 훈령 제정
 - 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 확대

나. 현행 체제하의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방안 추진

(1) 식량생산 및 환경보전 등 국가 기간농업 지도사업 강화

- 농촌진흥기관 공공지도기능의 차별화 및 지원 확대
 - 농업이 국민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기간농업을 설정하여 중점 추진
 - 공공기능을 전담할 부서 및 안정적인 지도인력 확보 방안 강구
 -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기술·정보의 보급기능인 지도사업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공사업 예산은 점차 전액 국비로 보조지원
- 중앙의 집행기능으로서 주곡자급 지도사업 수행
 - 국민식량 안전생산 중점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식량생산 지도에 필요한 생육조사, 병해충 예찰, 토양비료 지원기능 보강
 - 영농현장의 취약점 보강 및 전문기술보급을 위한 기술지원단 운영
-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기술 보급 교육 강화
 - 농약 및 비료 등 농자재의 적정투입을 위한 정밀농업 기술보급
 - IPM, INM 기술의 실용화 보급 교육 확대
 - 친환경농업 기술을 모든 보급교육자료의 기본편성방향으로 설정
 - 농산물의 안정성과 신뢰도 증진을 위한 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 강화
-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으로 공감대 확산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교육 홍보하여 국민의 신뢰감과 지지기반 조성
 - 농촌진흥기관 개방 및 농업 체험학습을 통한 국민의 인식 제고

(2) 지역별 명품 및 수출전략 품목의 중점 육성

□ 시군 농업기술센터 보급기능의 집중화

-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특성을 살린 전략 품목 개발과 지도인력 감축에 대처할 전문분야별 기능의 집중화 필요
 - 농업기술센터별 관장업무의 집중화와 지도사별 담당직무의 전문화 (예 : 10개 전략작목 설정 등)
- 브랜드품목을 담당하는 팀 인력보강 (예 : 버섯팀, 사과팀 등)
- 시군 농업기술센터간 인력활용 협약체결 운영
 - 시군간 미흡한 전문지도인력의 상호 보완

□ 지역별 전략품목 선정 및 육성

- 지역특산품으로 브랜드화하고 수출을 목표로 하는 작목 육성
 - 지리·경제적 여건이 유리한 중점 육성 작목 선정
- 기술수준이 우수하고 수출에 관심이 있는 대상작목 경영농가 중점 지원
- 동일 작목 경영농가간 작목반/작목별 연구모임 등 협업체 육성 지도
- 시설현대화, 보급교육자료 등 소요예산은 시범사업으로 국비 지원

□ 현장기술 지원 및 유관기관·단체 협력 강화

- 알림장터, 기술지원단 등 중앙의 품목별 분야별 컨설턴트 지원
- 수출 생산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수출상담실 운영
- 인터넷을 활용한 농산물 생산정보 및 신기술 보급
- 유관기관·단체간 유사사업에 대한 통합 운영 및 역할 분담

(3) 영농현장 애로기술 연구·지도 연계사업 확대

-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영농현장 연구과제 설정 운영

○ 현장집목연구사업을 시군의 지도사업으로 채택하여 운영

- 시험연구기관 사업 중에서 현장 실증연구가 필요한 과제 선정
- 농업기술센터 또는 관할 지역에서 시험연구를 수행하여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연구결과의 조기 실용화

○ 영농체계 연구·지도사업(Farming System Research and Extension Program) 도입

- 새기술 실증 또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기술개발 연구공무원과 관계 지도공무원, 유관기관·단체 등의 협력사업으로 추진
- 시설채소, 과수, 화훼 등 분야별로 영농체계 협력 시범사업 선정 운영

○ 전략작목 애로기술 과제 연구

- 농업기술센터의 시설 및 포장, 농가포장 이용한 애로기술 개발

□ 농업인 개발과제의 협력 추진

- 농업인 제안과제에 대하여 지도·연구직, 농업인, 교수 등으로 전문연구팀 구성 운영
- 지역단위 시범사업 및 행정지원사업으로 확대 보급

□ 선진 영농기술의 발굴 및 보급

- 관내외 벤치마킹에 의한 우수사례 수집 및 문제점 분석
- 도입 가능한 우수기술을 지도사업에 반영하여 활용

□ 연구하며 지도하는 지도공무원상 정립

- 지도공무원 전문 직무교육과정에 기초연구 교과 편성
- 지도공무원의 시험연구기관 자율탐구 학습활동 기회 확대

□ 연구·지도사업 협의체 구성 운영의 제도화

- 연구 및 지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관으로 구성
- 연구·지도사업 연계 강화방안 협의 및 조정

(4) 농촌여성 능력배양 및 생활환경 조성

□ 농촌여성의 가정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 향상

- 농가는 농업경영(생산)과 생활경영(가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농촌여성에게 농업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능력 함양
 - 생활기술, 영농기술, 가정관리, 노동관리, 정보활용 능력 등
- 농촌여성의 영농참여와 의사결정권 증대에 부응한 능력 배양
 - 여성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작업 환경 개선 및 노동부담 경감 방법 보급

- 농작업 환경개선과 효율화를 위한 시설, 보조기구 및 장비 보급
 - 건강관리실, 오이 수확차, 수확용 사다리, 깔판 등
- 농작업 피로 회복 및 건강생활 기술 보급
 - 농작업·휴식·운동방법 등 적정한 노동관리 지침 개발 보급

□ 농촌 생활환경 및 전통 생활문화 가꾸기

-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마을단위 경관 조성
 - 녹색공간 및 마을쉼터 조성, 농가 다용도부속사 설치 등
- 농촌의 전통지식과 고유의 생활풍습 발굴 및 소득자원화
 - 도시민의 농업·농촌생활문화 체험 기회 제공 등 교류 촉진

□ 농촌여성 소득활동 및 지역농특산물 가공

기술 지원

- 농촌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활용 소득자원화
 - 농의소득활동 및 부업기술 습득 훈련
- 농산물 가공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여성 농업인 육성
 - 지역특산물 가공기술 교육 훈련
- 쌀 중심의 한국형 식문화 정착 및 올바른 식품소비 정보 지원

(5) 농업기술·경영 컨설팅 및 사이버 상담 확대

□ 농촌진흥기관의 농업기술·경영 컨설팅 추진체계 구축

- 농촌진흥청 : 컨설팅 전략수립,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 주요 품목별 표준진단표 개발·보급, 목표관리 지도 시스템 구축
 - 전문 컨설턴트 양성 교육, 일선기관 요구에 의한 컨설팅 지원
- 농업기술원 : 도단위 광역 컨설팅체계 구축 운영
 - 연구·지도공무원, 대학교수, 선도농가 등으로 광역 컨설팅팀 구성
 - 지역별 전략품목 컨설팅 지원, 시군 컨설턴트 교육
- 농업기술센터 : 작목별 현안과제 컨설팅 수행
 - 경영진단 및 개선 처방, 핵심문제 중심의 기술정보 지원
 - 중앙·도 컨설팅 대상농가는 시군별로 기술·정보의 후속 지원

□ 농업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강화

- 시범농가 및 희망농가 중심의 경영 컨설팅으로 사업수행 효과 증진
- 민간부문의 경영컨설팅 사업과 협력을 통한 대상농가 확대
- 농업인 스스로의 경영진단능력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

□ 사이버 상담기능 확충

- 한자리 종합상담실 설치 운영
 - 중앙 : 전문요원 배치로 즉시 민원해결 및 관련 부서 연계
 - 지방 : 농업경영상담실 기능 보강
- 홈페이지, E-mail 이용 고객대상 사이버 상담 및 고객의 모니터요원화
- 전문분야별 사이버 상담용 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 지원

(6) 농업인 품목별 경영·학습조직 활성화

□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조직 운영의 체계화 (41천명)

- 각급단위 지도기관 특성에 맞는 농업인 연구모임 결성 운영
- 지도사별로 농업인 연구모임 책임지원제 도입 운영
-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특산물 개발 및 상품화

□ 지식정보화 사회의 4-H육성 강화방안 수립 (62천명)

- 4-H 회원 연령의 조정 : 13~29세 → 9~29세
- 학생4-H회 : 농심함양과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 영농4-H회 : 유능한 전문인력 육성 및 후계 인력 육성
- 회원의 욕구와 흥미에 맞는 자율적인 과제활동 전개

□ 농촌개발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 육성 (70천명)

- 식량증산, 작목별 생산활동 및 생산물 유통 직거래 활성화
- 전문 품목별 심도있는 기술연찬으로 지역농업의 선도
- 지방연합회 활동강화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조직활동 전개
- 도농연대 농심살리기 운동 전개로 농촌

의 활력화 도모

□ 과학적인 생활기술을 선도 실천하는 생활개선회 육성 (80천명)

- 쾌적한 생활환경, 편리한 농작업 등 선도실천으로 생활의 질 향상
-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특색있는 농촌여성 조직으로 육성
- 농촌 고유의 생활문화를 발굴 전수하는 농촌의 지킴이로 육성
-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외소득 활동의 전개
 - 농촌여성일감맞기, 농산물 가공법 개발 상품화 등

(7) 디지털 기술 정보의 관리 및 지원사업 강화

□ 사이버 기술·정보의 관리와 보급지원 확대

- 개발된 영농기술·경영 관련자료를 가공한 DB화 및 네트워크 지원
- 농업인별 영농특성에 부합하는 사이버 영농기술 상담 강화
 - 전문 지도사별로 DB를 가공하여 분야별 자료관리 및 활용
- 농업인의 정보 마인드화를 위한 컴퓨터 지원 및 교육 확대
-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사이버 컨설팅센터」로 운영
 - 관할 지역농가의 DB, 정보화교육, 전자상거래, 정보교류 등

□ 품목 담당자별 전자 메일링 시스템 운영

- 쌍방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으로 신기술의 신속한 현장 확산과 필요한 기술의 공유
- E-메일의 송수신이 가능한 농업인, 연구·지도·행정공무원, 관련교수, 유관기관·단체 직원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 메일의 구성 : 농업기술 및 정보 + 행

- 사, 소식 등
- 선도 농업인 및 농촌지도자 등의 여론을 수집하여 지도사업에 반영하고 지도사업 지원분위기 조성
- 디지털 기술정보 담당체계 구축
 - 우리 청 산하에 가칭 「농업기술사이버 교류위원회」 설치 제도화
 - 주요 협의 및 조정내용
 - 전국적인 농업기술 보급 정보망 구성 운영
 - 농업기술 관련정보의 수집, 분석 및 디지털화 추진
 - 기술정보내용을 DB화하여 네트워크 구성, 정보의 교류 활성화
- (8) 지도공무원의 전문역량 증진과 사기진작**
- 지도공무원 단계별 전문화 전략수립 지원
 - 초급 지도사 : 지도사업 입문 교육과정 운영
 - 업무관련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과정 추진으로 기초능력 배양
 - 선진지 연찬, 선배 활동사례 견습, 장기연수 등을 통한 실기능력 함양
 - 중견 지도사 : 품목별 전문교육과정 운영
 - 품목별 교육으로 전문기술 습득 및 업무수행 능력배양
 - 핵심기술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현장에 로기술 해결능력 배양에 중점
 - 선도 지도사 : 자율탐구 교육과정 운영
 - 담당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리더쉽 함양
 - 시험연구기관의 도제식 학습 및 특별연찬 등에 의한 현장의 문제점 해결
 - ※ 매년 지도공무원 직무기술서 발간 : 직무개선 및 능력배양자료로 활용
- 중앙과 일선 지도공무원간 전문기능의 차별화
 - 중앙 : 기술·정보 관리전문가(산재된 단편적 기술을 종합·분석·가공)
 - 일선 : 지역농업 기술전문가(지역전략작목의 기술을 농업인에게 보급 교육)
- 현장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취득 및 전문지도연구회 활성화
 - 지도사별 국가기술자격 취득으로 공인받는 전문가 육성
 - 매년 자격취득을 위한 특별교육과정 설정 운영
 - 전문지도연구회의 현장과제연구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
- 지도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화와 사기 진작
 - 지도직 특성에 부합하는 보수 및 수당 체계 강구
 - 일반직에 비하여 불리한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기준호봉 등 개선
 -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및 포상기회 확대
 - ※ 지도직공무원의 특성을 살린 「기술보급교육수당」 신설 검토
- (9) 농촌지도사업의 현장성과 평가제 도입**
-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농업인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요구(Needs) 파악 및 분석
 - 영농현장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환류(Feedback)하여 문제 해결
- 영농 및 생활현장의 실질적 성과를 지향하는 계량적 평가 확대
 - 활동중심(Activity-centered)인 농업인 행동(지식, 기술, 태도) 평가에 결과위주(Result-driven)의 성과평가를 부가하여 실시
 - 지도목표를 보다 세분화하고 계량화하여 평가지표로 활용

-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 지원체제의 확립
 - 우수 농촌지도기관에 대하여 자원을 집중 투자하여 지도사업 모델로 활용
 - 상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보상 효과 증진

- 참여자 중심(Participant-oriented)의 사업평가 강화
 - 농업인의 지도기관 평가로 고객중심의 지도사업으로 전환
 - 학습단체회원 외의 일반 농업인의 참여 확대로 지도효과 증진

- 중앙단위 「농촌지도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
 - 연구·지도·대학·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사업평가단 운영
 - 연중 현안과제 중심의 스팟트 평가로 현장의 문제점 조기 발굴 대처

다. 농촌지도체제 개편을 통한 사업추진 효율성 증진

- (1) 농촌진흥청(중앙)의 농촌지도기능 조정
 - 본청의 지도기능을 국가 기간농업 기술 보급과 농가소득 및 수출증대, 특정과제 중점 시행을 위한 전문기술 보급기능으로 구분하여 개편
 - 작목중심의 과단위 편제를 기능+작목 중심으로 개편
 - 과별 팀 기능을 과의 기능에 맞게 조정
 - 타 실국 연관업무에 대한 통합관리 운영으로 효율적인 인력 활용
 - 농업경영관실의 농가경영권설당 보급 기능 → 기술지원국

(2)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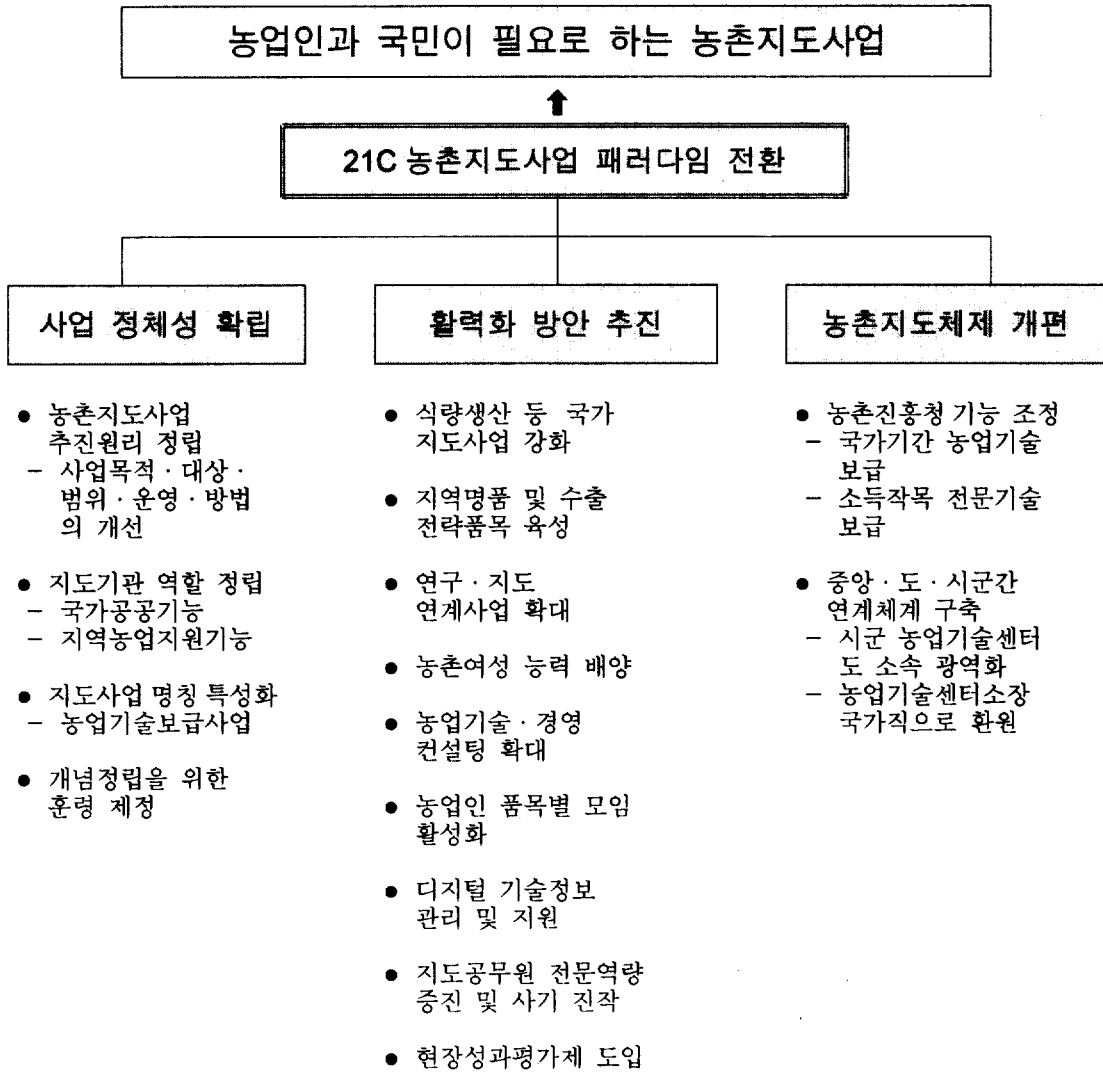
- 기본취지
 - 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서비스를 강화하

고, 국가적인 필수농업기능의 실현과 아울러 지방직 전환이후 나타난 농촌지도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 농촌지도체제의 개편이 필요

□ 개편방안

-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도지사(농업기술원장) 소속하에 설치
 - 지역특화작목시험장과 같은 체계로 특화시험장과 농업기술센터를 연계하여 운영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에는 지구지소 설치 운영
- 지방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도(道) 소속공무원으로 전환
 - 임용권 이관 : 시장·군수 → 도지사
 -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국가직으로 환원
- 사업예산은 수혜농업인 당해시군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제도화
 - 국가사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 부담
-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재산은 무상 임대하여 활용
 - 시군과 도의 상호 협약에 의함

Ⅲ. 결론 및 요약



Ⅳ. 참고 문헌

1. 강재태, 1996, 농업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농촌지도기구의 개편방안,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 3권 제 1호, pp 55-66
2. 김성수, 1996,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 3권 제 2호, pp 167-176.
3. 김정주, 1990, 농촌지도사의 역할수행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4. 정기산, 1993, 데이컴 접근에 의한 4-H담당 농촌지도사 직무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2000년 10월 6일 접수, 심사 후 수정보완)